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판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학회실 환경위생 심각한 상태

학생들의 책임있는 관리 요구

넓고 커다란 탁자 하나, 넓고 병든 나무의자 몇개, 보기에도 앙이있기 깨끗하한 소파 2개를 기본으로 널려진 스포츠 신문 쪼가리, 탁자위에 놓여진 국물 담긴 컵라면 찌꺼기, 음료수 빈병과 제멋대로 뒹구는 종이컵들, 비닐엔 겉은 담배꽁초들…

학생회실은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근거지이면서 많은 학우들이 모여 쉬기도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광간입니다.

매일 이른 아침마다 밀걸레 청소해놓는 몇몇 친구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려놓고마는 대다수 '우리들'의 자성이 먼저 되어야겠지만, 이 지면에서는 그폐해가 날로 심해가는 휘발유를 폐지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생각없이 쇼파나 의자에 앉았다가 휘발유가 옮아 죽지않은 사람들이 피로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강건해 학내 건물마다 전체적으로 소독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복지'는 접어두고라도 '환경위생'에 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비쌘 시일내에 학교당국에서 시정해주시길 바라면서,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회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우들의 책임있는 자세로 쥐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했습니다.

임 귀 녀
(물리대 물리·3)

이완용 증손자 땅찾기 기만 행위

당국의 제도적 방침 필요

한국 근·현대사는 민족화를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속에서 발전돼 왔으며 현재 진행되어 간다.

역사의 현실속에서 민족의 정기를 찾고 이어가야할 즈음에 일보 어느곳에선 국절된 시각은 하나인 "이완용 후손 이원철씨의 땅찾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증조부의 매국행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것까진 수긍의 동정이 되지만 아직도 민족 금융시가 재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완철씨가 고 주간지 인터뷰에서 밝힌 "증조부의 친일파행위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감정으로 그럴게 아니라 합방당시 정세 같은 것을 연구해 좀더 과학적으로 평가했으면 합니다"란 기사의 증조부 재산을 찾아 제단을 만들어 증조부님의 명예도 회복해 드리고 국가적으로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난기사는 국민을 기만하고 울분을 자아낼만큼 충격적이었다.

이는 민족 정기를 뒤흔든 신 매국행위로까지 간주될만하다.

다구나 한심한 노부의 친·현직 검련자, 변호사 그리고 전문 토지브로커들의 협조하에 조직적 활동을 통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있다니 왜에 역사의 현주소는 어디쯤 일까?란 반문과 함께 현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그저 씁달할뿐이다.

나라와 민족을 판 을사오적의 핵심 인물인 이완용의 후손이 소송제기에서 승소한것도 있고 소송중인것도 있다는데 이를 계기로 일제하에 친일행위를 한 후손들이 땅찾기 운동을 전개하지 말란 법은 어디 있는가?

조국 광복을 위해 순국 선열들의 값진 희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흑백논리란 극단적인 방법은 정당하지는 않지만 한 민족의 역사를 반추해볼때 친일 행위와 애국 행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이어 민족의 자주성내지 정통성을 통한 민족 정기를 확립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땅찾기 운동과 유사한 행위가 부활되지 못하도록 국가의 강력한 제도적 방침이 있어야 옳고 후 스스로 국민 감정을 격앙시키는 행위는 삼가로 반성하는 자세로 목격히 살아갔으면 한다.

백 승 남
(사회대 경영·2)

실천없는 외침은 메아리일뿐

조그만 부분부터 평화실천해야

제11회 평화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고 한다.

그 동안 TV 드라마나 스포츠 뉴스에서 가끔 볼 수 있었던 학교 뉴스를 방송이나 신문에서 볼 수가 있어서 기쁜 마음이 앞섰다.

하지만 2년째 학교에 다니는 내게 '평화의 날'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평화의 '날'에 대해서 아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

이유는 평화의 날이 기념식으로만 끝나기 때문이라고 본다.

본소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다.

평화의 날이 11회를 맞았다면 10년이 지나는 동안 이론적인 바탕은 어느정도 축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거창한 캠페이이나 행사가 아닌, 진정 모든 참학우들이 '평화'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보다 실질적인 행사들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평화라는 단어를 듣는다. 부시도, 엘친도, 군국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일본의 총리나 정권연장을 위해 물불을 안가리는 현 정권이 내거는 구호도 '평화와 안정'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실내에서 논의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록 오해와 실수도 있겠지만 조그마한 일부터 실천하려는 용기에서부터 우리의 평화는 지켜질 것이다.

서 광 열
(철학·2)

삶을 되돌아 볼 기회

독서로 인생을 살찌우자

살아가기위해 목을 축이는 동물에게도 자신을 되비쳐볼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는 있는가. 해맑기 좋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삼 갖게 되는 의문이다.

두꺼운 정도 자신의 진공이나 휘적에 별 관계가 없는 책을 읽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한심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을로 접어드는 시간은 살아가기 위한 독서에서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세상을 읽기위해 책속에 살아가는 것도 대학시절의 귀중한 시간이 아닐까 한다.

최 성 희
(경제·1)

황 춘 섭
(가정대교수·의상학)

내가하는 공부

"내가 왜이렇게 변했지?"하면서…

인류를 위한 인간에 적합한 섬유를 연구

20여년전, 강의시간에 다루어지는 주제마다에 그야말로 깊이 깊이 심취되어 열강하시는 내 옛 스승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경탄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었다. "참으로 이상하네 저 교수님께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무에 그리 재미있으실까 —"하고, 그러나 어느덧 그 스승님을 아이없게도 꼭 닮아버린 내 자신의 모습이다. 하여, 요즈음에는 "참 모를 일이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하고 중얼댄다.

그래서, 그 스승님과 함께, 우리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치린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가 진행된다.

첫째, 복식문화사 분야이다. 생활에 담긴 온갖 정서와 민족성, 풍습 및 사회제도, 가치관, 종교관 등과 관련지어서 세계 각 종족그룹의 전통 복식문화사를 고찰하는 것은 인류사회를 가장 인간답게 이끌릴 수 있도록 한다. 의생활문화에는 인간 본연의 심성과 시대 사회상이 가장 진솔하고도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있기 때문이다.

둘째, 복식산업 분야이다. 복식업은 패션성이 몹시 강하고, 소비자의 내외적 욕구에 철저히 부합해야 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위험부담률이 그 어느 산업보다도 높다. 따라서 복식산업계와 연계하여 상품기획과 생산공정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분석 및 예측자료를 개발한다.

셋째, 의류재료 분야이다. 문이 많은 연구결과들을 빛지 않고도, 우리는 전연 섬유가 사람에게 가장 위생적이고 쾌적하다는 것 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자연의 일부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기에,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섬유를 제2의 피부(의복)로서 가장 쾌적해 준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연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만이 날로 늘어가는 실정이다. 게다가 기능적,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천연섬유가 지닌 문제점도 적지 않다. 예를들면, 구김이 너무 쉽게 많이 간다든가, 마찰에 대해 약해서 쉽게 해진다든가 하는 등의 문제들이다. 뿐만아니라, 심미적인 측면에서 볼때에도 천연섬유만으로는 우리 욕구가 충족시키지지 못한다.

고정된 천연섬유의 질감이 천차만별로 다양한 현대 복식 디자인 모두에 적합할 수는 없다. 질감이 디자인과 조화되지 않을 때는 원하는 실루엣을 얻지 못한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천연섬유에 최대로 가까운 성격을 지닌 합섬섬유 개발과, 천연 섬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공법에 대해서 연구한다.

다.

또한 각급의 섬유시험 검사소 및 업계와 연계해서 복식산업계의 제품이 지녀 생산원가 및 제질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험연구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염색 및 세탁 견뢰도를 비롯하여, 보온·통기성과 피부접촉 야기의 위험도 등 위생에 관련된 연구가 포함된다.

습 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

【서울 캠퍼스】▲ 화생중= ▲김충국(국문·85) ▲정은선(지리·89) ▲변창근(지리·92) ▲김성연(무역·89) ▲박동규(회계·92) ▲유성희(영교·90) ▲임지연(의상·92) ▲차덕윤(한의예·87) ▲김강민(치의예·87) ▲김경미(약·91) ▲이선주(약·90)

▲학생증=▲오창석(영문·90) ▲윤순구(무역·91) ▲곽원우(환경·90) ▲이창준(물리·91) ▲최인용(원자력공·90) ▲이재준(전자공·90) ▲이규동(전자공·90) ▲정호화(토목·89) ▲조연진(임학·90) ▲서기자(요업공예·91) ▲이세현(재료·91) ▲김진화(체육·91) ▲김동철(라관도·90)

분 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

【수원캠퍼스】▲파란색 천 가방(수첩, 옷, 책)=고진민(체육·87) 8월초 성남에서 모임후 학교로 오는 스쿨버스 안에서.

교수동정

전동훈 교수도미

【서울캠퍼스】▲한정수(의대·정형외과) 교수=지난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인도네시아방문 ▲김린(의대·내과)·21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그리스방문 ▲윤종(의대·외과)=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그리스 방문

【수원캠퍼스】▲전동훈(건축과) 교수=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자료조사차 미국방문 ▲진용옥(전자과) 교수=지난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학술회의 참석차 중국방문.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김종현(국문·3) ▲고상희(국문·2) ▲박정은(영문·2) ▲이호영(사학·1) ▲김은희(지리·3) ▲곽인제(물리·4) ▲이치은(물리·3) ▲방종현(물리)▲신문희(화학·4) ▲현지웅(신방·2) ▲김종환(경영·2) ▲고대표(경영·4) ▲신근섭(무역·4) ▲크영재학생회장(정경대) ▲안효숙(영교·3) ▲사대학생회 ▲배숙영(기관·2) ▲김민지(가관·1) ▲전미령(의상·1) ▲김민정(의예·92) ▲이상선(간호·2) ▲김현승(한의학·4) ▲양성광(한의학·3) ▲윤준위원장(한의대) ▲송진호(건축·1) ▲김규진(치의예·2) ▲박지원(치의·1) ▲한김중(치의학·4) ▲황대석(체육·2) ▲정효진(심의원) ▲양수모(삼의원)

【수원캠퍼스】▲전지한(원자·4) ▲이창렬(전자3) ▲김세훈(회계·2) ▲강지만(토목·2) ▲전영택(환경·4) ▲기매연(섬유·3) ▲최한신(원자·2) ▲박성희(원예·3) ▲박영익(회계·3) ▲이관희(전자·4) ▲허은정(원예·3) ▲조정규(영문·3) ▲이정수(요공44) ▲이진미(유전·2) ▲장선현(기계) ▲김우영(건축·1) ▲김병수(임학·1) ▲강영미(전산·1) ▲한동근(건축·4) ▲송용주(태권·3)

동문모임

중앙고 동문회

【수원캠퍼스】▲세종고=오는 24일 오후5시30분 광대휴게실 ▲중동고=오는 24일 오후5시30분 광대휴게실 ▲대원고, 대원여고=오는 24일 오후 5시30분 광대휴게실 ▲덕성고=오는 24일 오후5시30분 광대휴게실

▲양석고=오늘 오후 6시 본관앞 ▲서초고=오는 24일 오후 5시 캠퍼스Ⅱ ▲서울고=오는 23일 오후 5시 녹원 ▲신인고=오는 25일 오후 6시 금정 당구장 ▲관악고, 배화여고=오는 26일 오후 1시 정문 ▲석산, 동아여고=오는 26일 오후 2시 대운동장 ▲집현향우회=오는 26일 오후 5시 정문 ▲동성고=오는 25일 오후 5시 수화장

총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테니스 동아리 KUTA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동아리연합회 후원으로 제5회 총장배 테니스대회를 노원구장에서 개최한다.

남자 단식·복식으로 나눠 치루는 이번 대회의 참가신청은 오늘까지 KUTA 동아리방에서 받으며 참가비는 단식 4천원, 복식 5천원이다.